

블록 시 번역 노트 :

러시아 상징주의 시 번역의 경험과 과제

최 종 술

(상명대학교)

I. 불가능성의 가능성

시 텍스트의 번역은 원론적으로 말해 불가능하다. 민족어의 가장 내밀한 본성과 불가분 연관되어 있는 시를 다른 민족어의 토양에 이식하는 것은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번역되고 있다. 시 번역가는 ‘번역할 수 없는 것의 번역 가능성’¹⁾이라는 역설과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번역불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는 이미 내용의 요소를 이루는 여러 수준의 형식적·구조적 요소들을 완전히 전달할 수 없음을 고려함이다. 즉 원시와 번역시 사이의 절대적인 동일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의 번역은 늘 일정한 ‘손실’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20세기 러시아 시인이자 번역가였던 마르샤크(С. Маршак)의 말을 빌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동일성’의 추구는 번역가의 모국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며, 시의 가치의 훼손이다.”²⁾ 그렇다면 ‘손실’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시 번역의

1) Попова И. Ю. “‘Свинцовое эхо’ Дж. М. Хопкинса. К проблеме перевода ‘сложной’ поэзии,” *Тетради переводчика*, Вып. 21, М., 1984: 48.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번역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능주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원 텍스트의 어떤 요소에 상응하는 다른 언어의 요소를 찾을 수 없음이 번역불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번역의 정확성은 개별적인 요소 사이의 기계적인 상응이 아닌 원시 전체에 상응하는 구조와 의미상의 등가물의 창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 번역의 가능성은 시 전체와 개별 요소들이 맺고 있는 기능적 관계에 대한 접근에 기초한다. 원시와 번역 사이의 절대적인 동일성이 달성될 수 없기에, 시 번역의 정확성의 관건이 되는 것은 원 텍스트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의 관계를 맺는 텍스트의 창출이다.³⁾ 번역 상의 구체적 문제들은 이에 기반 하여 해결이 모색된다.

‘번역 불가능한 것의 번역’을 위해 감수되는 손쉬운 손실은 시의 형식이다. 흔히 내용을 위해 형식을 희생한다. 하지만 산문으로 번역된 서정시는 원시에 상응하는 ‘등가물’이 아니다. 그와 같은 번역은 개념적 내용을 전달하긴 하지만, 원시의 정념과 향기를 재생하지는 못한다. 시의 내용은 개념이 아닌 정념이다. 번역가의 과제는 비단 개념적 정보의 전달 뿐 아니라 번역시의 독자에게 원시 독자에 근접한 정서적 환기를 낳는 것이다. 정념의 올바른 전달이 번역의 승패를 가늠한다. 원시와 번역시는 기계적 등가성이 아닌 기능적 등가성을 통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형식과 내용의 상응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시 번역의 특수성을 낳는 시어와 산문어의 차이는 러시아어의 경우 음운, 형태, 어휘, 통사의 네 수준에서 모두 나타난다.⁴⁾ 이때 시어가 통사적, 형태론적 수준에서 지니는 특수성은 많은 경우 운율 체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망각 가능하다. ‘손실되어서는 안 될’ 의미론적 부하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2) Маршак С. “Поэзия перевода,” Маршак С.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8 томах. Т. 6*, М., 1971

(http://sonnets-best.narod.ru/Marshak_Poesy_of_Translation.htm).

3) Бархударов Л.С.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еревода английской поэзи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Тетради переводчика, Вып. 21*: 41.

4)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Эвалд Озерс.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еревода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оэтика перевода*, М., 1988 (<http://kalaus.livejournal.com/10196.html>).

그러나 음운과 어휘 차원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원시의 행과 연이 지닌 운과 선율의 느낌과 고유한 시적 어휘와 형용이 지닌 사고의 유희를 번역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원시의 정념의 올바른 전달에 있어 ‘손실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시의 정념을 번역시의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번역가는 자신의 모국어에서 기능적 등가물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시인의 고유한 시어들에 구현된 사고의 유희, 그 기본적인 사상과 모티프에 상응하는 새로운 언어 형상을 번역가 자신의 모국어의 지반에서 발굴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번역은 두렵고 지난한 과제로 다가온다. 누구나 번역가가 될 수는 없다. 시 번역가는 원시의 시인과 그를 양육한 민족문화의 토양에 정통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가는 타문화에 정통한 식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시인이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그는 모국어의 섬세한 선율에 민감하고, 민족 시문학 전통의 다양한 갈래에 정통해야 한다.

번역가는 예측과 자유를 동시에 누린다. 마르샤크의 말을 계속 빌리면, ‘좋은 번역’은 정확성에 대한 원론적 요구와 번역가의 자유에 대한 주장의 중도에 자리한다. 문자 그대로의 정확성의 추구로 주문(呪文)과 같이 되어버린 텍스트가 원시의 시적 가치의 상실을 초래한다면, 번역가의 과도한 자유는 원시를 왜곡시킴으로써 시인의 개성과 원시에 고유한 민족 문화적 자질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정확성은 ‘결함’(порок)이며, 시인의 개성과 원시의 문화적 고유성을 말살시키는 번역의 자유는 ‘범죄’(преступление)다.”⁵⁾

번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의 진정한 얼굴을, 그의 시대와 민족성을, 그의 의지를, 영혼을, 성격을, 기질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이해와 전달의 정도를 마르샤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한다. “번역가는 원시의 시인이 말하는 바 뿐 아니라,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⁶⁾

이와 같은 견지에서 마르샤크는 좋은 번역가를 훌륭한 배우에 견준다. “좋은 번역가는 배역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배역 속에 전 존재로 녹아 든 배우와 같다. 번역가는 작가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하고, 작가를, 작가의 태도와 말을 사랑해야 한다. 동시에 번역가는 자신의 말과 심지어 자신의 시적 개성에 대

5) Маршак С. Там же.

6) Там же.

한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 얼굴 없는 번역가는 항상 무미하고 활기 없다. 훌륭한 번역가는 작가를 억압하지도 왜곡시키지도 않으며, 은연중 불가피하게 자신의 시대와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⁷⁾

20세기 문화적 삶에서 현대 러시아시와 한국시는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현대문학 형성에 김억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러시아 상징주의 시의 번역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 출간된 필자의 블로그 시 줄역⁸⁾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징주의 시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러시아 시를 조금 읽고 공부했을 뿐인 필자가 번역가로서 지닌 모습은 마르샤크가 말하는 이상적인 번역가의 자리에서 멀어도 한참 먼, 그 ‘누구나’일 뿐이다.

러시아 상징주의 시는 여전히 대학 강의실에 갇혀 있다. 시의 위기?.. 아니다... 여전히 시인은 태어나고, 시는 읽힌다. 뛰어난 시인은 뛰어난 독자다. 왜 현대 러시아시는 시인의 서가 한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까?

무능함이다. 나태함이다. 양적 규모와 질적 다양성의 견지에서 번역비평은 러시아 상징주의 시와 관련하여 ‘비평거리’를 갖지 못했다. 러시아 상징주의 시의 번역은, 그리고 수용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과제다. 이 과제에 대한 논의를 줄역 경험의 편린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II. 러시아 상징주의의 시학과 번역의 과제

(러시아) 상징주의 시는 시 번역가가 처하는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번역 방법론의 문제와 직결된 이 난맥상은 상징주의의 세계관과 시학이 지닌 특성들로부터 발원한다. 줄역 경험에 대한 고백에 앞서 ‘불가피한 사족’에 약간의 지면을 할애해야 할 이유이다.⁹⁾

7) Там же.

8) 알렉산드르 블로그, 최종술 역, 『블로그 시선』, 지만지, 2009.

9) 세계관과 시학으로서의 러시아 상징주의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논의들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가 콜로바예바(Л.А. Колобасева)의 저서 『러시아

러시아 상징주의는 서구 상징주의와 태동의 일반적 조건을 공유하며 1890년대에 그 시작을 알렸다. 즉 러시아에서도 상징주의는 실증주의적 세계관과 미학의 ‘불필요한 진실’(브류소프(В. Брюсов))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브류소프, 벨리(А. Белый), 바체슬라프 이바노프(Вяч. Иванов), 엘리스(Л. Эллис) 등, 러시아 상징주의 이론가들은 ‘상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주창했다. 상징주의자들의 이원적 세계지각(현상계(мир феноменальный)와 본질계(мир ноуменальный)) 속에서 현상계는 진정한 세계가 아니다. 인간의 삶의 세태적·사회적 원칙들은 삶의 진정한 면모를 감추는 가면들이다. 그들은 합리주의 인식론이 기반하고 있는 인과적 결정론에 세계와 인간의 내적 삶의 무한성에 대한 느낌을 대치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예술로서의 상징주의에 종합의 예술로서의 위상을 부여했다.

‘상징’은 ‘암시’(намёк)이자 ‘끄덕임’(кивок)이며 ‘잔영’(отблеск)이다. 즉 비밀스러운 베일에 가려진 무한하고 진정한 다른 존재의 기호이다.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상징이 지닌 특수한 위상에는 직관과 신비주의의 계기가 불가분 결부되었다. 예술가는 신비주의적 직관 속에서 상징을 통해 세계와 삶의 통일성을 정신적으로 전유한다. 예술은 인식이 아니라 창조이다. “...상징주의는 인식에 대한 창조의 우위를, 예술 작품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변모시킬 가능성을 강조한다.”¹⁰⁾ “...무엇보다도 의지와 삶의 생생한 통일로, 인식에 대한 창조의 우위로 이끄는, 해방의 길로서 상징주의는 소중하다.”¹¹⁾ 상징이 지닌 창조적 의미는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관계, 연관의 포착과 실현에 있다. 시는 신비주의적인 내적 시선을 통한 세계의 비밀스러운 본질의 직관적 포착, ‘지상’과 ‘천상’의, ‘현상계’와 ‘본질계’의 관계맺음이다. 상징주의 시를 통해

상징주의』(Русский символизм)의 1장이다. 번역의 난점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이루어질 러시아 상징주의 시의 세계관적 기반과 시학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언급 역시 대부분 콜로바예바의 저서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보다 자세한 이해는 Колобаева Л.А. *Русский символизм*, М., 2000, с. 10-29 참조. 이하 논의에서 러시아 상징주의 이론가들 견해의 직접적인 인용은 상기 저서로부터의 재인용으로 괄호 속에 출처를 밝힌다.

10) Белый А. “Проблема культуры,” Белый А. *Критика. Эстетика. Теория символизма: В 2 т. Т. 1*, М., 1994, с. 51(17).

11) Эллис, “Культура и символизм,” *Весы*, 1909, № 10-11: 168(17).

세계의 통일성(상응)이 실현되고, 단일한 전체로서의 생의 모습이 창조된다. “상징은 육화된 단일성이다. 단일성이 상징이다.”¹²⁾ ‘영원을 향한 창’인 상징을 통해 역사가 영원과, 구체가 보편과 수렴된다.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에 따르면, 염원의 낭만주의(мечтательный романтизм)와 달리 상징주의 시인은 낭만주의적 우수에 실제적인 격정을, ‘신비주의적인 자기 확립 행위’를 대치시킨다.¹³⁾ 예술의 과제는 엑스타시에 찬 직관의 섬광의 순간을 각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의 두 층위의 구별과 상호침투가 상징주의자에게 있어 ‘상징’이 지닌 특수한 의미와 시학의 기초를 이룬다.

‘창조’와 ‘인식’의 계기를 불가분 통일하는 시인의 자유로운 직관이, 그의 ‘발견’이 지닌 가치를 설파한 상징주의자들은 경험적 현실을 변모시키는 말의 주술적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로부터 여러 구조적 층위에 걸쳐 발현되는 상징주의 시학의 주요 특징들이, 그리고 이와 결부된 상징주의 시 번역의 어려움이 발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태 위로의 비상’, ‘변모된 시공으로의 존재이월’의 정서적 느낌을 환기시키기 위해 상징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음악에 의탁했다. 특별한 정서적 느낌을 지닌 말의 선율의 창조자인 시인은 생의 비밀의 현현에 대한 예언자이자 세계의 변혁가이다. ‘소리로부터 사상을 이끌어내고자’ 한 상징주의자들의 지향이 낳은 유운과 두운의 폭넓은 음운 변주를 번역을 통해 되살려내이란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통사의 차원에서 정형적인 율격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추구된 음악성도 전달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세태와 초월의 통합에 대한 지향은 한편으로 시적 형상의 물성을 탈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의 감각가능성을 꾀한다. 어휘와 형용의 차원에서 익숙한 의미 연관의 파괴가 빈번한 까닭이다. 파격적인 의미 연관은 익숙한 경험적 세계지각을 파괴하고 탈(脫)세태적인 환영(幻影)적인 사고전개를 제시한다. 물성(物性)의 탈각에 빈번히 활용되는 ‘연상적 은유’, 특히 양방향성의 동시적인 시적기회를 가장 잘 구현하는 ‘모순형용적 은유’의 성공적인 번

12) Белый А. “Эмблематика смысла,” Белый А. *Ук. соч.*, с. 91(19).

13) Иванов Вяч. “Предчувствия и предвестия,” Иванов Вяч. *Лики и личности России. Эстетика и литературная теория*, М., 1995, с. 72(17).

역 역시 상징주의 시 번역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결합될 수 없는 개념의 결합을 통해 유한과 무한의 통합을 꾀하는 모순형용적 은유는 상징주의 시학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성은 상징주의 시의 문체의 근간을 이룬다. 이때 시적 형용의 번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상징주의 시의 형용어가 지닌 역할에 충실한 번역이다. 형상적 구체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상징주의 시의 형용어는 은유의 자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이 ‘은유성’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압시와 환기, 그리고 주술의 상징주의 시학은 그 ‘문체적 표식’을 위한 특별한 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고어와 이국적인 말의 활용 및 신조어 창조의 경우들인데, 이 말들이 상징주의 시의 문맥에서 지닌 의미와 기능에 준하는 적절한 번역 역시 난제로 대두된다.

이와 같이 상징주의자들은 여러 수준의 시적 의미 체계에서 찰나적인 세계 변모의 신비극의 순간을, 이에 결부된 독특한 정서적 느낌과 사고의 유희를 형상과 리듬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상징주의 시 텍스트에서 음운과 리듬이 이야기하는 정서적 느낌과 어휘와 형용이 구현하는 사고의 유희를 번역은 어떻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징주의 시의 번역어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한국어의 음운상징적·음악적 가능성과 추상과 구체의 동시적인 표현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시에서 실제적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러시아어에 훨씬 친화적인 서구 상징주의 시 번역 사례에 대한 검토 또한 유의미한 참조가 될 것이다.

음악성과 음운상징의 문제에 대한 답의 추구는 안타깝지만 시인이 되지도, 한국시의 명민한 독자가 되지도 못한 필자의 능력 밖이다. 그저 언어형상의 문제와 관련된 예를 필자의 ‘번역노트’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III. ‘줄역노트’로부터

1. ‘В вине’ - ‘죄악 속에’ 혹은 ‘술 속에’

www.kci.go.kr

블로크의 유명한 시 「미지의 여인」(Незнакомка, 1906)은 사고의 유희의 전달과 관련된 예를 하나 제시한다.

[...]

А рядом у соседних столиков
Лакеи сонные торчат,
И пьяницы с глазами кроликов
"In vino veritas!" кричат.

[...]

В моей душе лежит сокровище,
И ключ поручен только мне!
Ты право, пьяное чудовище!
Я знаю: истина в вине.

인용은 시의 6연과 마지막 13연으로 상징주의자적 세계지각의 이원성에 상응하여 이원적 의미구조를 이룬 시의 두 부분의 결말에 해당한다. 필자는 인용된 두 연을 이렇게 옮겼다.

[...]

나란히 이웃한 탁자들에서
졸린 급사들이 얼굴을 내밀고
토끼 눈이 된 취객들이 외친다.
"In vino veritas!"

[...]

내 영혼 속에 자리한 보물.
열쇠는 오직 내게 맡겨져 있다!
네가 옳다. 술 취한 괴물아!
나는 안다. 술 속에 진리가 있다.

원시에서 마지막 두 시행의 의미는 다의적이다. 그것은 원문의 ‘в вине’가 ‘술(포도주)(вино) 속에’와 ‘죄악(вина) 속에’의 이중적 의미로 읽히기 때문

과 관련된다. 실제로 시인은 어휘 형태의 외적 동일성을 토대로 사고의 유희를 벌인다. (두 어휘는 시의 율격(암브(약강격))에도 부합한다.) 이 어구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술 속에’, 아니면 ‘죄악 속에’?..

사실 이 시어의 번역은 시적 사색의 유기적인 연장선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대두된다. ‘레스토랑’이라는 시적 공간, ‘취객’의 형상, 그리고 라틴어로 대두되는 ‘술’의 모티프는 이 시어를 ‘술 속에’로 별 고민 없이 옮기게 한다. 하지만 필자는 번역 과정에서 이 시어의 번역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흥미로운 지적 하나와 만났다.

지적은 한 연구자가 블록 시의 영어 번역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¹⁴⁾ 연구자에 따르면,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블록 시의 영어 번역의 경우 한국어 번역과는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다. 곧 필자의 줄역을 포함한 한국어 번역이 안고 있는 지난한 과제가 러시아 시의 선율이 지닌 상징적·정서적 환기의 전달이라면, 좋은 영어 번역의 경우 선율의 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고의 유희’의 충실한 전달 문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것이 좋은 영어 번역으로 인정받는 Jon Stallworthy와 Peter France의 번역본(Blok Alexander, *Selected poems*, Translated by Jon Stallworthy and Peter France. Harmondsworth, 1974) 상의 인용된 블록 시의 마지막 두 시행이다.

And you are right you drunken monster!
I know now: there is truth in wine.

Jon Stallworthy와 Peter France의 번역은 언어 형상과 관련하여 필자의 번역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연구자는 ‘in wine’으로의 번역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한다. ‘in wine’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술’의 모티프에 남긴 채 상징

14) Саленко О.Ю. “Пробл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поэт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материале переводов стихотворений А.Блока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ществоведение в МИСус*, № 8, М., 2000 (www.bibliofond.ru/view.aspx?id=124927).

주의자적 이원적 세계지각에 기반을 둔 시적 슈제트의 이중성을 충실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Reeve Franklin의 번역(Reeve Franklin D. Aleksandr Blok. *Between image and idea*. N-Y.:London, 1962)이다. Reeve Franklin은 ‘в вине’를 ‘in sin’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이것이 상징주의 시어의 다의적 가능성과 ‘생의 창조’로서의 예술의 기능에 보다 부합한 번역으로 간주한다.¹⁵⁾

과연 그런가? 고민에 뒤따른 필자의 선택은 역시 ‘술’이었다. 최종적인 번역 결과는 같지만 상기 지적은 블로크 시를 포함한 상징주의 시 번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를 환기시켜 주었다.

연구자의 지적이 지닌 문제는 블로크 시의 이해와 번역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단일한 거대 문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 점은 사이클을 통한 문맥의 시학에 치중했던 다른 상징주의 시인들에게도 중요성의 편차를 두고 관련된다.)

블로크의 창작의 길을 이끈 것은 변혁의 시대의 삶의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정신적·정서적 체험과 이에 수반되는 환멸과 절망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향한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 시대적 인간의 정신적 삶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적 실현이 ‘서정적 삼부작’(лирическая трилогия)이다. 블로크는 단일한 거대 문맥을 통해 대두되는 ‘길’의 주제의 견지에서 상이한 시기에 쓴 시들을 독자적인 정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작품들로 간주하지 않았다. 모든 작품이 모여 단일한 예술적 총체를 이룸을 블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개별 시는 저마다 **장**(사이클)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여러 장들이 모여 **책**을 이룬다. 각 권은 **삼부작**의 부분이다. 삼부작 전체를 나는 ‘시 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

[...] кажд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главы*; из нескольких глав составляется *книга*; каждая книга есть часть *трилогии*; всю трилогию я могу назвать "романом в стихах".¹⁶⁾

15) Саленко О.Ю. Там же.

이 ‘시 소설’은 시인의 운명의 이정표들이 투영된 독특한 서정적 일기이다. 개별 시와 사이클은 ‘시 소설’이 반영하고 있는 ‘시인의 운명의 이정표들’, 곧 의식의 삶의 각 단계가 지닌 특징을 구현한다. 이때 개별 시와 사이클에 구현된 상호모순적인 세계와 삶의 정신적·정서적 체험이 모여 이루는 시적 슈제트의 토대가 되는 것이 블록의 ‘말들-창끝들’이라 부른, ‘삼부작’을 관류하는 시어들이다.

모든 시는 몇몇 단어의 창끝에 걸어 펼친 덮개다. 이 단어들은 별처럼 빛난다. 이들로 인해 시가 존재한다.

[...] всяк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 покрывало, растянутое на остриях нескольких слов. Эти слова светятся, как звезды. Из-за них существует стихотворение.¹⁷⁾

개별 시와 사이클, 그리고 ‘책’을 관류하는 핵심 시어들, ‘말들-창끝들’을 통해 대두되는 모티프와 형상들은 다의적인 의미의 부침 속에서 시적 사색과 정념의 ‘나선(螺線)적인’ 진화¹⁸⁾를 표상한다. 때문에 블록의 상징주의 시의 이해와 번역 모두에서 이 핵심어들에 결부된 의미의 스펙트럼과 시적 의식의 진화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자가 줄여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의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정된 지면이나마 블록의 예술적 이상과 시학의 면모를 충실히 드러내며, 그의 ‘길의 신화’의 전모를 온전히 구현하고자 한 최초의 번역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블록의 ‘말들-창끝들’은 번역 시 선정 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어야 했다.

16) Блок А.А. Полн. соб. соч.: В 20 т. Т. I, М., 1997, с. 179 (이탈릭체 - 블록).

17) Блок А. А.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 1965, с. 84

18) 블록의 작가의식의 진화가 지닌 특수성을 지칭하는 이 용어는 의식의 모순과 중첩 속에 전개되는 회귀와 전진의 반복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블록에 대한 막시모프의 고전적인 논문을 참조. Максимов Д.Е. “О спиралеобразных формах развития литературы: к вопросу об эволюции А. Блока,”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Древней Руси*, М., 1976.

바로 시어 ‘вино’를 비롯한 ‘술’의 모티프와 결부된 시어들은 다의적인 상징적 의미망을 지니며 블록의 시를 관류하는 ‘말들-창끝들’의 하나다. 줄역에 수록된 시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Она была - живой костер

Из снега и вина.

Кто раз взглянул в желанный взор,

Тот знает, кто она.

[...]

"Довольно жить, оставь слова,

Я, как метель, звонка,

Иною жизньию жива,

Иным огнем ярка".

Она зовет. Она манит.

В снегах земля и твердь.

Что мне поет? Что мне звенит?

Иная жизнь? Глухая смерть?

- “Зачатый в ночь, я в ночь рожден...” (1907)

그녀는 눈과 포도주의

살아있는 모닥불이었다.

애타게 하는 그 눈동자를 들여다 본 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안다.

[...]

“생은 이제 충분해. 이제 말은 그만.

눈보라처럼 내 목소리는 맑아.

나는 다른 생을 살아.

다른 불길로 타올라.“

그녀가 부른다. 그녀가 유혹한다.

눈에 파묻힌 대지와 하늘.

내게 무엇을 노래하는가? 내게 무엇을 울리는가?

다른 생? 황량한 죽음?

- 「나는 밤에 잉태되어 밤에 태어났다」

‘술’의 모티프는 ‘서정적 삼부작’을 관류하며 핵심 주제들 및 다른 주요 모티프들과의 결합 속에서 상징주의 시인 블록의 ‘세계 신화’를 구현한다. 일부 시행이 인용된 시 「나는 밤에 잉태되어 밤에 태어났다」에서 ‘술’의 모티프에는 사랑, 죽음, 도시 등의 주제들과 물기, 눈보라, 불길 등의 모티프들과 불가분 결부되어 있다.

이 시는 블록의 신화창조적인 자전적 텍스트의 하나로 시적 형상과 주제의 차원에서 관련성을 지닌 삼부작 2부의 시들에 대한 일종의 ‘메타텍스트’이다.¹⁹⁾ 메타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시들 중의 하나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 「미지의 여인」이며, ‘술’의 모티프가 지닌 다의성과 관련하여 이 관계는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시의 여주인공 역시 「미지의 여인」이다. 그녀는 유혹하는 미다. 그녀는 비밀스러운 매력으로 미지의 세계에서의 삶을 부추긴다. 시적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경계 위에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여주인공은 다른 세계로부터의 전령이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현실 세계에도 속해 있다. 여주인공은 실제 세계의 세태적 차원과 환상적, 신비적 차원 모두를 구현하고 있다. 세태적 층위와 환상적, 신비적 층위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된 시적 여주인공의 형상은 세태의 인상을 신비적이고 낭만적인 코드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인의 지향의 구현이다. 초경험적 실재와 세태적, 역사적 삶 사이의 탄력적인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블록의 지향은 절대 순수의 천상 세계로부터 죄스런 지상 세계로의 추락,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면, ”삶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하강 운동“²⁰⁾을 낳는다. 시인의 시는 ”고행의 길이자 죄스런 지상의 삶의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혼란스런 내용“²¹⁾으로 채워진다. 여주인공의 절대적

19) 이 점에 대해서는 Блок А.А. Полн. собр. соч.: В 20 т. Т. 2, М., 1997, с. 709 참조.

20) Андреев Д. Роза мира, М., 1997, с. 419.

21) Жирмунский В.М. “Поэзия Александра Блока”, Жирмунский В.М.

이고 완전한 생으로의 유혹은 모순적이고 걱정적인 지상의 삶 자체가 지닌 유혹이다. 주인공은 여성적 환영(幻影)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기로에 선 듯하다. 여주인공의 형상은 끔찍한 고통과 무한한 희열을 함께 약속하는 삶 자체의 표현이다. ‘눈보라’와 ‘불길’의 형상과 결부되며 고통스러운 걱정을 표상하는 ‘술’의 모티프는 고립된 개별자로서의 ‘나’를 극복하게 하는 성스러운 디오니소스적 엑스타시로서 대두된다.²²⁾

이 시에서 포도주의 형상이 지닌 고상한 국면에 대해 시 「미지의 여인」의 포도주의 형상은 자기 아이러니적 관계를 맺고 있다.²³⁾ 시 「미지의 여인」 역시 상징주의자 블로크의 ‘두 세계에 대한 관념’, 즉 ‘현상계’와 ‘본질계’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을 구현한다. 그리고 ‘в вине’의 언어 형상이 지닌 개연적인 의미의 이중성은 ‘미지의 여인’의 형상이 지닌 예술적 속성의 이중성과 결부된다. 이중적인 세계지각이 시를 관류한다. ‘매료된 저 먼 곳’(очарованная даль), ‘황량한 비밀’(глухие тайны)의 세계가 교외 다차촌의 레스토랑의 세태와 중첩된다. ‘미지의 여인’의 형상 자체도 그와 같이 대두된다. 그녀는 시인의 ‘아름다운 여인’(Прекрасная Дама)이자 레스토랑의 여인이다. 시인은 이 세계에서 오직 그에게만 부여된 독특한 지위를 누린다. 그는 두 세계의 매개자다.

이 맥락에서 시의 말미에서 블로크가 라틴어 구문 “In vino veritas”를 러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Л., 1928, с. 201.

- 22) 다음은 줄여에 수록된 시 중 이 국면에서 ‘술’의 모티프가 대두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시의 구절이다. “나는 햇불의 잔을 푸른 하늘에 던진다. / 은하에 파문이 일리라. / 황무지 위로 너 홀로 솟아올라 / 혜성의 치맛자락을 펼치리라. // 은빛 치맛주름을 만지게 해다오 / 무심한 심장으로 알게 해다오 / 내 고행의 길의 달콤함을. / 가볍고 밝은 죽음을.” - 「별이 흩뿌려진 긴 치맛자락」(1906) (Кубок-факел брошу в купол синий - / Расплеснется млечный путь. / Ты одна взойдешь над всей пустыней / Шлейф кометы развернуть. // Дай серебряных коснуться складок, / равнодушным сердцем знать, / Как мой путь страдальный сладок, / Как легко и ясно умирать. - “Шлейф, забрызганный звездами...”)
- 23) Барковская Н.В. “«Пьяный красный карлик не дает проходу...»: Мотив вина в поэзии А. Блока и А. Белого,” *Литературный текст: проблемы и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8. Мотив вина в литературе. Сб. науч. тр.*, Тверь, 2001, с. 69.

시아어로 반복한 것은 단순하지 않다. 짐짓 천박하게 취객의 입을 통해 울리는 이 말은 우선 교외 레스토랑의 꼴사나운 상황을 창출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다른 수준에서 상징주의자들이 니체에게서 취한 디오니소스의 이상을 구현하며 패리디한다. 시인은 다차촌의 취객이자 창조자다. 그래서 마지막 시구는 이중적인 결론을 내포한다. ‘истина в вине’는 창조적 영감의 동기로서의 술의 모티프를 의미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의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서정적 주인공이 지니는 죄의식의 표현이다. 마지막 시구를 통해 블록은 이중적인 존재상을 영위하는 상징주의자의 갈등을 이끌어내며, 생의 수수께끼를 제기한다.²⁴⁾

블록의 ‘길의 신화’에서 ‘술’의 모티프가 지닌 상징적 다의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삶의 수용’의 이상과 ‘조국’의 주제와 결부되어 대두된다. 앞서 인용한 시들에 앞서 창작된 시에서 블록은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

Нет, иду я в путь никем не званный,
И земля да будет мне легка!
Буду слушать голос Руси пьяной,
Отдыхать под крышей кабака.

Запою ли про свою удачу,
Как я молодость сгубил в хмелю...
Над печалью нив твоих заплачу,
Твой простор навеки полюблю...
- “Осенняя воля” (1905)

아니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길을 나는 가리.
대지는 내게 버겁지 않으리!
술 취한 루시의 목소리를 들으리.
선술집 지붕 아래 쉬어가리.

24) 바로 이 점은 번역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자 자신이 지적한 바다. Саленко О.Ю. Там же.

내 성공에 관해 노래할까?
취기 속에 파산한 내 젊음을?
네 발의 슬픔을 울리.
네 광야를 영원히 사랑하리...
- 「가을의 의지」

‘술에 취해 젊음을 파산한’ ‘나’는 곧 ‘술 취한 루시’다. 이렇게 이 시에서 ‘술’의 모티프는 세상과의, 민중과의 합일의 이상 속에서 ‘길의 신화’의 중요한 한 국면을 형성한다. 내밀한 삶과 사회적 삶의 차원이 서로 조응하며 상호 침투하는 블로크의 ‘세계 신화’에서 ‘술’은 고결한 이상으로부터 하강(추락)한 ‘나’와 ‘조국’이 처한 곤궁의 상징이 된다.

И на щеке моей блеснула,
Скатилась пьяная слеза.
[...]
Что я увидел дно стакана,
Топя отчаянье в вине.
- “Холодный день” (1906)

술 취한 눈물이 빛나며
내 뺨을 타고 굴렀어.
[...]
절망을 술잔 속에 가라앉히며
내가 술잔의 바닥을 보았음을.
- 「추운 날」

Что на свете выше
Светлых чердаков?
Вижу трубы, крыши
Дальних кабаков.

Путь туда заказан,
И на что - теперь?
- “На чердаке” (1906)

세상에서 밝은 다락보다
무엇이 더 높은가?
먼 선술집들의
굴뚝과 지붕을 보네.

저리로 가는 길은 주문되었건만
이제 무엇을 위해?
- 「다락에서」

Летели дни, крутятся проклятым роем...
Вино и страсть терзали жизнь мою...
- “О доблестях, о подвигах, о славе” (1908)

저주받은 무리가 되어 맴돌며 세월이 날아갔다...
술과 정열이 내 생을 찢었다...
- 「소박한 테두리 속 네 얼굴이」

*Забудь, забудь о страшном мире,
Взмахни крылом, лети туда...²⁵⁾*
Нет, не один я был на пире!
Нет, не забуду никогда!
- “Так. Буря этих лет прошла.” (1909)

잊어. 무서운 세상은 잊어.
날개를 펴덕여. 저곳으로 날아가..
아니. 나 홀로 주연에 있었던 게 아냐!

25) 이탤릭체 - 블로크.

아니. 결코 잊지 않으리!

- 「그래. 이 시절의 폭풍우는 그쳤다」

Я пригвожден к трактирной стойке.

Я пьян давно. Мне всё - равно.

Вон счастье мое - на тройке

В серебристый дым унесено...

[...]

И только сбруя золотая

Всю ночь видна... Всю ночь слышна...

А ты, душа... душа глухая...

Пьяным пьяна... пьяным пьяна...

- “Я пригвожден к трактирной стойке.” (1908)

나는 선술집에 붙박였다.

오래전 나는 취했다. 모든 것이 내겐 마찬가지.

여기 내 행복은

은빛 연기 속으로 트로이카에 실려갔다...

[...]

금빛 마구만이

밤새 보인다... 밤새 들린다...

너, 영혼아... 황량한 영혼아...

취하고 취했구나... 취하고 취했구나...

- 「나는 선술집에 붙박였다」

Подруга, на вечернем пире,

Помедли здесь, побудь со мной.

Забудь, забудь о страшном мире,

Вздохни небесной глубиной.

- “Дым от костра струею сизой” (1909)

여인아. 저녁 주연에

이곳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있어. 무서운 세상은 있어.
 하늘의 깊이로 숨 쉬어.
 - 「모닥불 연기가 푸른 물결이 되어」

Что через край перелилась
 Восторга творческого чаша,
 И всё уж не мое, а наше,
 И с миром утвердилась связь, -
 - “И вновь - порывы юных лет” (1912)

창조의 환희의 술잔이
 차고 넘쳤음을.
 그리고 이미 더 이상 내가 아닌
 우리의 세상과의 결속이 확립되었음을.
 - 「또다시 젊은 시절의 걱정」

이제 ‘술’은 탐미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술’은 부정적인 세태의, ‘길의 신화’의 한 단계로서의 ‘무서운 세상’의 핵심적인 상징이다. 서정적 ‘나’는 1부의 ‘순결한 어린아이’도 디오니소스적 성화(聖化)의 계기에 의탁하는 탐미주의자도 아니다. 디오니소스적 탐미주의자에 대척적인 2부의 또 다른 ‘서정적 나’는 ‘집 없는 곤궁한 부랑아’, ‘생의 무게에 신음하는 소시민’, ‘한밤 선술집의 취객’이다. 이제 ‘술’의 모티프에는 충일감의 계기가 아닌, 정신적 공동화와 죽음의 계기가 동반된다. “서정적 주인공은 자기망각적인 환희로 들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망각적인 애수로 신음한다.”²⁶⁾ 블록의 서정적 주인공은 ‘디오니소스적 영원’으로의 영적 고양을 체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취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으로 침잠한다. 이렇듯 ‘술’의 모티프는 블록의 ‘길의 신화’의 소유주다. 곧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영원’의 축복으로부터 ‘지상의 삶’의 고행에의 동참을 거쳐 민중 봉기와 혁명의

26) Барковская Н.В. Там же.

숙취의 파멸적인 환희를 향한”²⁷⁾ 길이다.

‘술’의 모티프 및 이와 결부된 언어 형상들은 블록의 ‘서정적 삼부작’의 유기적인 구성소의 하나다. ‘в вине’가 ‘죄악 속에’로 번역될 때, 단일 시의 문맥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는 무난히 전달될 수 있지만, 모티프와 형상이 상징주의 시의 신화체계에서 지닌 상충적이며 동시에 상보적인 다의적 의미망상의 한 고리의 상실을 초래한다. 상징주의 시의 번역은 그 시어가 지닌 다의적 상징성에 ‘열린’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2. ‘지상의 도시들의 뒷골목들’(колодцы земных городов)

О, весна без конца и без краю -
Без конца и без краю мечта!
Узнаю тебя, жизнь! Принимаю!
И приветствую звоном щита!

Принимаю тебя, неудача,
И удача, тебе мой привет!
В заколдованной области плача,
В тайне смеха - позорного нет!

Принимаю бессонные споры,
Утро в завесах темных окна,
Чтоб мои воспаленные взоры
Раздражала, пьянила весна!

Принимаю пустынные веси!
И колодцы земных городов!
Осветленный простор поднебесий
И томления рабьих трудов!

27) Там же, с. 72.

오, 끝없고 한없는 봄!
 끝없고 한없는 여름!
 생이여, 너를 알겠다! 너를 받아들인다!
 방패 소리로 네게 인사한다!

실패여, 너를 받아들인다.
 성공이여, 네게 나의 인사를!
 매혹의 영역 속에서 울며
 웃음의 비밀 속에 수치는 없다!

잠을 잊은 논쟁을,
 어두운 창 커튼 속의 아침을 받아들인다.
 내 충혈된 눈을
 봄이 자극하도록, 취하게 하도록!

황량한 촌락들을 받아들인다!
 지상의 도시들의 뒷골목들을 받아들인다!
 드넓은 밝은 하늘과
 노예의 노동의 노곤함을 받아들인다!

블로크의 유명한 시 「오, 끝없고 한없는 봄!」(О, весна без конца и без краю...)의 전반부다. 1907년 창작된 이 시는 사이클 『화염과 암흑에 거는 주문』(Заклятие огнем и мраком, 1907)에 수록되었다. 블로크의 애독자라면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레르몬토프(М.Ю. Лермонтов)적인 아이러니와 염세주의가 상쇄된 ‘삶의 수용’, ‘생의 찬가’가 이 시의 주제와 내용을 이룬다.²⁸⁾ 모순과 파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적의’와 ‘애정’이 한 몸인 ‘생의 체험’ 의지의 천명을 선언적인 강한 영탄적 어조와 장중한 리듬 및 적절한 언어 형상 속에 담아낸다면 이 시의 번역은 무난하다 할 것이다.

28) 이 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 줄고를 참조. 최종술, “은밀한 열기: 레르몬토프 - 블록 - 쓰베타예바,”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 15권 제 2호 (2005): 392-398.

여기에서 시적 형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구절은 ‘지상의 도시들의 뒷골목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시구다. 필경 번역시 독자들은 (복수 명사의 중첩이 지닌 리듬 상의 다소간의 꺾끄러움을 제외하곤) 이 시구를 꺾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힌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이를 위해 역자가 이 시구를 두고 고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시의 시어 ‘колодцы’이다. 이 시어의 단수인 ‘колодец’의 사전적 의미는 ‘우물’ 혹은 (우물같이 파인) ‘구멍’이다. 그렇다면 이 어휘가 포함된 시구의 번역은 ‘지상의 도시들의 우물들을 받아들인다?’인가? 생뚱맞고 의미 개연성이 희박하지만, 가능하긴 하다. 블로크의 ‘길의 신화’를 추상적인 도식 속에서 이해할 때, 이를 ‘조감시점’에 따른 시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곧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경쟁하는 ‘천상’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 ‘지상’의 혼돈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에게 도시들은 우물(구멍)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의 오류에 따른 번역의 오류다. 시인의 문맥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는 시의 이해를 빈곤하게 할뿐더러 때로 심각한 오류에 처하게 한다.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정신적 삶을 살았던 블로크 같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인용된 전반부와 은유적 대응관계를 이루는 후반부의 “뱀의 머리타래 속에 광포한 바람을 지닌”(С буйным ветром в змеиных кудрях), “딱 다문 차가운 입술 위에 미지의 신의 이름을 지닌”(С неразгаданным именем бога На холодных и сжатых губах) 여인과 같은 삶을 이미 맛보고 있다. 그리고 희열과 고통이 하나인 격정적인 삶에 대한 찬가(讚歌)를 부른다. 이 찬가를 통해 그는 어둡고 밝은 삶의 전체적인 면모를 수용한다. 생의 수용의 계기는 앞의 ‘술’의 모티프처럼 양가적이다. 곧 신비주의의 지평과 결부된 디오니소스적 충만에 대한 지향이 한 계기를 이룬다. 시인은 일상의 삶 속으로의 몰입을 통해 일상 너머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을 추구한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염원이 강하다. 이 영혼은 부분적이고 제한된 일상과 비밀스런 완전한 생의 꿈 사이를 서성인다. 사랑의 열정은 세태(быт)의 영역으로부터 존재(Бытие)의 영역으로 상승하게 하는 기적이다. 이런 정신의 구조를

두고 지르문스키(В.М. Жирмунский)가 ‘신비주의적 허기’(мистический голод)²⁹⁾라 부른 바와 같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가변적인 삶의 찰나적인 열정이 허락하는 형이상학적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탐닉이 시인의 영혼을 지배한다. 블록은 찰나적이고 가변적인 삶의 모든 인상들을 적극적인 대결의 의지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적인 영적 고양의 계기가 더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계기는 시어 ‘колодцы’의 번역의 문제와 직결된다. 디오니소스적 파토스와 분리될 수 없이 결부된 민주적 파토스가 그것이다.

블록의 ‘삶의 수용’의 이상은 삼부작 1부의 단일한 세계상의 해체와 더불어 대두되었다. 시인은 다양하고 모순적인 세계 체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것은 초기 시가 지닌 추상적 사변성을 극복하고 삶의 구체적 면모와 마주함이다. 그리하여 서민적 고뇌가 블록 시의 주도적인 선율이 된다. 서민적 고뇌는 블록의 인간이 거쳐 가는 삶의 한 단계를 조명한다. 민중적인 정서는 고뇌에 찬 ‘지상의 삶’으로, ‘사원’과 ‘즐거운 정원’을 떠나 ‘저주받은 노동’의 세계로³⁰⁾ 나아가는 블록의 인간이 지닌 정신적 풍경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 된다.³¹⁾ ‘정열의 늪’에 대한 정당화는 시인의 신화적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 초월적 이상 세계로부터 모순적인 지상의 삶의 수용으로 나아가는 자아의 변모는 양가적인 가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통과제의’로서의 역사적 현실과 자아의 융화다.

디오니소스시인의 영감이 향하는 곳은 사회적 혼란의 어둠, 고통 받고 궁핍한 사람들의 삶 속이다. 시인은 삶의 바닥으로의 몰입이 강렬할수록 ‘다른 세계’는 보다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말한다.³²⁾ 블록은 ‘제 2의 세례’(Второе крещение)

29) Жирмунский В.М.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С. 208.

30) ‘길의 신화’상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시로, 앞에서 인용된 바 있는 시 「추운 날」의 다음 시구를 참조. “너와 나는 사원에서 만나서 / 즐거운 정원에서 살았어. / 하지만 이제 구린내 나는 마당을 지나 / 저주와 노동을 향해 나아갔어.”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 тобою в храме / И жили в радостном саду, / Но вот зловонными дворами / Пошли к проклятью и труду.)

3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저작들을 참조. Гинзбург Л.Я. *О лирике*. Л., 1974, с. 278; Горелов А. *Гроза над соловьиным садом*. Л., 1973. с. 159 등.

32) “그래. 영감은 그렇게 명한다. / 굴욕의 자리로 / 진창과 어둠과 궁핍의 자리로

로 역사적 현실에의, 동시대의 삶의 궁핍에의 동참을 정당화했다. 그것은 ‘눈’과 ‘불’의 세례다. 곧 혼돈과 파괴의 ‘눈보라’, 현존하는 삶의 질서를 소진시키는 ‘세계의 화재’로서의 악 속에 내재된 선의 계기에 대한 긍정이다.³³⁾

이 신비주의의 지평과 서민적 고뇌의 이중적 계기의 통일을 고려할 때 ‘колодец’는 “‘двор-колодец’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곧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옮길 때, 이것은 ‘우물모양 마당’인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서민용 공동주택(комуналка)의 안마당을 의미한다. 통로를 통해 거리와 또 서로 이어져 있는 이 안마당들에는 별이 들지 않아 어둡침침하다.

그렇다면 이 시어를 ‘우물모양 안마당’ 혹은 군더더기 없는 리듬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그냥 ‘안마당’으로 옮겨야 할까? 한국어 독자에게는 이 번역 시어를 통해 시의 전체적인 정념의 구조가 전달되지 않는다. 주거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삶의 바닥으로의 몰입’에 대한 시적 자아의 정신적 지향의 맥락에서 탄생한 변안 시어가 그래서 ‘뒷골목’이다.

III. 비교문학과 문화학, 그리고 번역 (걸어를 대신하여)

마르샤크의 말을 다시 상기한다. 그가 견주는 훌륭한 배우와 같은 번역가의

/ 내 자유로운 염원은 내내 흐른다. 다른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그리로...” - 「그래. 영감은 그렇게 명한다.」(1911-1914) (Да. Так диктует вдохновенье: / Моя свободная мечта / Всё льнет туда, где унижение, / Где грязь, и мрак, и нищета. / Туда, туда, смиренней, ниже, - / Оттуда зримей мир иной... - “Да. Так диктует вдохновенье”)

- 33) “눈보라가 내 문을 열었다. / 내 골방이 얼어붙었다. / 새로운 눈의 성수반 속에서 / 나는 제 2의 세례를 받았다. //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며 나는 안다. / 사람들이 있음을, 일이 있음을. / 악의 길을 가는 모두에게 / 낙원을 향한 길이 분명 열려 있음을.” - 「제 2의 세례」(1907) (Открыли дверь мою метели, / Застыла горница моя, / И в новой снеговой купели / Крещен вторым крещеньем я. // И, в новый мир вступая, знаю, / Что люди есть, и есть дела, / Что путь открыт наверно к раю / Всем, кто идет путями зла. - “Второе крещенье”)

활동을 통해 번역의 과제는 수용의 과제에 직결된다. 번역은 문화 소통의 중요한 통로이다. 번역가의 활동을 통해 문화의 접촉이, 영향과 굴절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번역의 문제는 언어학(기호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코드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문학과 문화학의 과제의 일부이다.

번역가는 번역을 통해 한편으로 개별 시인과 시의 고유한 정념 및 이와 불가분 결부된 민족문화의 특질을 보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다른 문화에 속한 독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줄고가 제시한 번역 경험의 편린이 이에 대한 추구에 해당할 것이다.

시인 마르샤크의 직관적 통찰은 나아가 번역의 학제적 성격에 대한 학적 이해와 수렴된다. 문화의 소통, 문화 간 대화의 장인 번역은 경계선상의 문화 현상이다. 좋은 번역은 문화 간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말 그대로 공간적 의미를 획득하게 한다. “번역활동을 가로지르는 문화적 경계선상에서는 침투의 제한, 필터링, 변안을 통한 대화 등의 문화 접촉의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³⁴⁾ 번역은 (‘러시아의 바이런’으로서의 레르몬토프나 ‘러시아의 존 던’으로서의 브로츠키 (И. Бродский)와 같은) ‘문화적 분신’의 출현을 통해 문화 변동에 본질적인 계기의 하나를 이룬다.

번역학과 문화학과 비교문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두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을 번역할까? 문화적 접촉 지대는 어디이며, 그 윤곽은 무엇인가?.. 러시아 상징주의 시의 번역과 결부된 비교문학과 문화학의 과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지면을 빌어 이루어질 것이다.

34) Лотман Ю.М. *Внутри мыслящих миров. Человек - текст - семиосфера - история*, М., 1996, с. 265.

❖ 참 고 문 헌

알렉산드르 블로크, 최종술 역, 『블로크 시선』, 지만지, 2009.

최종술, “은밀한 열기: 레르мон토프 - 블록 - 쓰베파예바,” 『러시아연구』,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Андреев Д. *Роза мира*, М., 1997.

Барковская Н.В. “«Пьяный красный карлик не дает проходу...»: Мотив вина в поэзии А. Блока и А. Белого,” *Литературный текст: проблемы и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8. Мотив вина в литературе. Сб. науч. тр.*, Тверь, 2001.

Бархударов Л.С.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еревода английской поэзи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Тетради переводчика, Вып. 21*, М., 1984.

Блок А. А.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 1965.

Блок А.А. *Полн. соб. соч.: В 20 т.*, М., 1997.

Гинзбург Л.Я. *О лирике*, Л., 1974.

Горелов А. *Гроза над соловьиным садом*, Л., 1973.

Жирмунский В.М.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Л., 1928.

Колобаева Л.А. *Русский символизм*, М., 2000.

Лотман Ю.М. *Внутри мыслящих миров. Человек - текст - семиосфера - история*, М., 1996.

Максимов Д.Е. “О спиралеобразных формах развития литературы: к вопросу об эволюции А. Блока,”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Древней Руси*, М., 1976.

Маршак С. “Поэзия перевода,” Маршак С.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8 томах. Т. 6*, М., 1971.

(http://sonnets-best.narod.ru/Marshak_Poesy_of_Translation.htm).

Попова И. Ю. “Свинцовое эхо’ Дж. М. Хопкинса. К проблеме перевода ‘сложной’ поэзии,” *Тетради переводчика, Вып. 21*, М., 1984.

Саленко О.Ю. “Пробл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поэт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материале переводов стихотворений А. Блока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ществоведение в МНСуС, № 8*, М., 2000 (www.bibliofond.ru/view.aspx?id=124927).

Эвалд Озерс.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еревода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Поэтика перевода*, М., 1988.

(<http://kalaus.livejournal.com/10196.html>).

❖ ABSTRACT

Notes on the translation of Blok's lyrics : Experience and Problems of Korean Translation of Russian Symbolist Poetry

Choi Jong-sool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of korean translation of russian symbolist poetry on the basis of my recent translation of Blok's lyrics.

"Resettlement" of poetry on other cultural soil is a difficult task. It is not simply a problem of linguistics (semiotics). As S. Marshak, a famous russian poet and translator of the XX-th century, has told, in translation activit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transfer original shape of the translated poet, his time, a nationality, his will, soul, character, temperament".

Two episodes, connected with difficulties of transfer of language images and poetic thoughts of the poet-symbolist, have arisen at aspiration to an adequate translation.

The first episode is from practice of transfer of the poem "Unknown lady". The problem is the equivocality of image "В вине". Similar to the given episode forces the translator of symbolist poetry to pay attention on the equivocality of poetic motives and images in the context of the given poet and poetic culture in general.

The second episode is connected not only with a context of the individual poetic world and art school as a whole. Here the context of national culture is important also.

It is a question about transfer of the poem "О, весна без конца и без краю...". Special difficulties have arisen while translating the word "КОЛОДЦЫ", that seems particular, but all the same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ology.

In the final part of this article importance of transfer as channel of cultural dialogue is underlined. In this aspect problems of the translation of poetry are inseparable from problems of comparative literary criticism and culturology. It is a problem of the future researches.

Key Words

번역, 알렉산드르 블로크, 러시아 시, 상징주의, 문화학

Translation, Aleksandr Blok, Russian Poetry, Symbolism, Culturology

논문접수일: 2009. 11. 13.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